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Mother's Emotional Intelligence o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박진영*, 부성숙**

세인트폴 어린이집*, 경기대학교 유아교육과**

Jin-Young Park(haemoe@naver.com)*, Sung-Sook Pu(pss@kgu.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정서지능의 중요성 및 어머니의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 2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어머니의 정서지능은 양육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나,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높은 반면,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약 15.6%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지능의 하위 변인 중 정서표현, 정서조절이 양육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양육효능감에 대해 약 23.4%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지능의 하위 변인 중 정서인식, 정서표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정서지능 | 양육스트레스 | 양육효능감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mothers on their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in an attempt to provide some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mothers. A total of 228 mothers whose children attended kindergartens or day-care center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descriptive,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emotional intelligence had a negative correlation to parenting stress but positive correlation to parenting efficacy. Second, mother's emotional intelligence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parenting stress. In addition, among the sub-fa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expression, emotional regulation exer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on parenting stress. Third, mother's emotional intelligen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parenting efficacy. In addition, among the sub-fa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expression exer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parenting efficacy.

■ keyword : | Emotional Intelligence | Parenting Stress | Parenting Efficacy |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하고 재분석한 것입니다.

접수일자 : 2014년 08월 12일

수정일자 : 2014년 09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9월 18일

교신저자 : 부성숙, e-mail : pss@kgu.ac.kr

I. 서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부모의 삶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정서와 감정, 이에 대한 표현방식은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영유아기의 정서적 경험은 성장 이후의 정서 표현과 반응 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발달의 토대를 형성하므로[1], 영유아기 정서 사회화의 대행자로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부모는 자신의 정서표현을 통해서 유아에게 다양한 정서에 대한 모델링을 제공하고, 자녀와의 정서 관련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에게 정서에 대한 간접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2].

그런데 유아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유아와 어머니가 맺는 관계이다. 가족 구성원 중 어머니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직접적이고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유아에게 어머니는 여러 측면에서 직접적인 모델이자 동일시 대상이며, 특히 어머니-자녀 관계에서 나타내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반응은 유아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3][4].

따라서 가정이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측면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5-8]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머니의 정서 관련 변인들이 유아의 정서발달과 정서조절능력, 행동 특성 및 사회적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성과 적절한 양육이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9], 어머니의 정서지능은 유아의 정서지능과 상관관계가 있으며[10][11],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유아의 문제행동이나 친사회적 행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12][13] 어머니의 정서지능과 정서적 측면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은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행복과 만족감을 높임으로써 부모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된 몇몇의 연구들[12][14][15]은 어머니의 정서적 측면을

정서지능의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정서지능의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했던 [16]는 정서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능력이라고 하였고, [1]은 자기 자신을 동기화 시키고, 좌절에 직면하여 살아남고, 충동을 억제하고 만족을 지연시킬 줄 알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이입을 하고, 희망을 가지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적응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적응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좌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1][17][18]. 즉, 정서지능은 감정 정보처리 능력이며, 감정 정보처리 능력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정확히 지각하고,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 동기를 부여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감정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끄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16][19]. 이에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학교나 직장에서 주어진 일에 동기부여를 잘하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하며 자신의 좌절상황도 긍정적으로 조절하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와 변화에 잘 대처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역동적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삶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성취하는 데 지적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19][20]. 반면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의 경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자기상(self-image)과 자기 존중감(self-respect)이 낮으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과 친밀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따라서 어머니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 조절할 수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감정과 의도를 잘 이해하여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서지능은 어머니에게 매우 필요한 능력이며, 어머니로서의 삶의 질 향상과 부모로서의 만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능력이다.

최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환경적인 요인 이외에 어머니의 인지적, 정서적 요인 및 정서지능과 같은 내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어머니의 정서적 능력과 어머니의 내적 요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14][22-24]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머니-자녀 관계 속에서의 정서적 교류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육행동 같은 표면적인 특징보다 행동의 근저에 깔려 있는 개인적 특성이나 내적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25][26].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내적 요인으로서 대표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양육스트레스인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어머니들은 자신이 받았던 방법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계를 느끼게 되고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27]. 어머니들이 겪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우울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28]. 때문에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역기능적이고 부당한 양육행동을 보이고 [29][30],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권위주의적 통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그런데 최근 연구들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공감의 효과[32-34]를 언급함으로써 어머니 정서적 능력이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높으면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어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되었고[33],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34]. 공감 능력이 높다는 것은 타인의 감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맞게 반응하는 감정이입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감정이입은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사회능력과 기술의 기본 능력이면서 정서지능의 핵심적인 하위요소이다[1][17]. 따라서 정서지능의 하위요소인 감정이입이나 공감 능력이 높을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것은, 어머니-자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갈등요소를 적절히 수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정서지능과 양육스트레스의 연관성 및 정서지능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스트레스와 함께 어머니 양육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내적, 인지적 요인으로 꼽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양육효능감이다. 양육효능감이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으로[35], 간단히 표현하면 어머니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합리적으로 지도하는 것, 애정, 적극적 참여와 상관이 있고[36],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까다롭고 다루기 힘든 성격의 자녀와도 관계 형성을 잘하며[37], 자녀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고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8]. 또한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37],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는 학업성취도가 높고 대인관계도 원만하며 학교에서의 적응력이 높게 나타났으며[39],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앞에서 설명한 양육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양육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27][40], 어머니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31][38]. 즉,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부모로서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보임으로써 자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양육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주요 심리, 내적 요소이면서 자신의 능력과 정서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어머니로서의 긍정적 자아 형성 뿐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해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41], 어머니의 정서적 능력과 연관될 수 있다. 최근에 정서지능과 양육효능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어머니의 정서지능과 양육효능감의 관련성을 살펴본 [15]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능과 양육효능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정서지능은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 대상의 연구이긴 하지만 [42]의 연구에서 정서지능과 자기 효능감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

고, 정서지능 수준과 자기 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이 정서 경험을 스스로 사고와 행동으로 통합시킴으로써 효능감 역시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42][43]. 이는 정서지능이 양육효능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어머니가 자신감을 가지고 부모역할을 잘해낼 수 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고, 심리적 소진 및 스트레스와도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있어서 정서지능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정서지능과 양육효능감을 살펴본 연구는 [15]의 연구에 국한되어 있고, 더구나 [15]의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별 상대적 영향력은 검토하지 않았다. 때문에 어머니의 정서지능과 양육효능감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유아기 시절부터 좋은 어머니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어머니의 정서지능과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 및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지능 관련 국내 연구는, 어머니의 정서지능과 유아의 정서지능[10][11], 유아의 행동문제[12],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15] 등 주로 유아의 개인적 특성 및 행동과의 연관성이나 영향력을 살펴본 것이 대부분이다. 어머니 정서지능과 어머니 자신의 내적 요인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44][45]의 연구 정도가 있을 뿐 많지 않고, 더구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내적 요인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내적 요인으로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지능과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의 연관성 및 정서지능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

정서지능의 중요성 및 어머니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정서지능과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2.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22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아동의 연령은 만 1세(32명), 만 2세(45명), 만 3세(47명), 만 4세(64명), 만 5세(40명)이고 연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명	%
연령	30세 미만	16	7.0
	30세 ~ 34세	94	41.3
	35세 ~ 39세	86	37.7
	40세 이상	32	14.0
학력	고졸 이하	39	17.2
	전문대 졸	56	24.7
	대학교 졸업 이상	132	58.1
취업 유무	유	80	35.1
	무	148	64.9
월 평균 소득	200 ~ 300만원 미만	40	17.5
	300 ~ 400만원 미만	65	28.5
	400 ~ 500만원 미만	62	27.2
	500만원 이상	61	26.8
총 계		228	100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 대상의 연령은 30세 이상~35세 미만이 41.3%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58.1%로 가장 많았다. 취업 유무에 있어서는 취업을 한 어머니(35.1%)보다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64.9%)가 더 많았고,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이 28.5%로 가장 많았다.

2. 연구도구

2.1 정서지능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16]의 정서지능 모형에 입각하여 [46]이 개발한 성인용 정서지능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문항 수는 총 45 문항이다. 그리고 정서지능의 다섯 가지 하위영역 중 정서인식(8문항), 감정이입(7문항), 정서조절(15문항), 정서표현(7문항)의 네 가지 영역은 3점 척도로 ‘항상 그렇다’ 3점, ‘가끔 그렇다’ 2점,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채점하였고, 정서활용(8문항) 영역의 경우는 2점 척도로 응답이 ①인 경우 2점, ②인 경우 1점으로 채점하였다.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채점하였고, 전체 점수의 범위는 45점-127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서지능 전체의 Cronbach α 는 .85이고, 각 하위변인별 문항구성 내용과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정서지능

구 분		문항 수	Cronbach α
정서지능	정서 인식	8	0.79
	정서 표현	7	0.63
	감정 이입	7	0.60
	정서 조절	15	0.83
	정서 활용	8	0.64
	전 체	45	0.85

2.2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46에서 재인용]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의 20문항을 [46]이 18문항으로 번안·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반반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에 해당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전체 점수 범위는 18점-90점이고, 양육스트레스의 전체 Cronbach α 는 .86이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27에서 재인용]이 개발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27]가 번안·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3문항으로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은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9문항)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4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점수 측정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반반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였고, 부모로서의 효능감 영역 9문항 중 2개 문항과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 영역 4문항은 모두 역채점 하였다. 전체 점수의 범위는 13점-6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양육효능감의 전체 Cronbach α 는 .88이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각 하위변인별 문항구성 내용과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구 분		문항수	Cronbach α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18	0.86
	부모로서의 효능감	9	0.85
양육효능감	좌절감과 불안감	4	0.73
	전 체	13	0.88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실행하기에 앞서 설문지의 문항 이해도 및 설문 응답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문항 이해의 어려움이나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사용할 최종 설문지로 확정하였다.

본조사는 2012년 6월 초순에서 7월 중순에 걸쳐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조사를 위해 먼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유치원 1곳과 민간 어린이집 2곳, 안산시에 위치한 가정어린이집 2곳과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가정어린이집 1곳에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의뢰하여 설문지 300부를 가정으로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배부한 설문지 300부 가운데 245부가 회수(회수율 81.6%)되었으나, 답변이 성실하지 않은 설문지 17부를 제외하고 총 228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 대상이 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지능과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orrelation(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정서지능과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의 관계

어머니의 정서지능과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표 5]과 같다.

표 4. 정서지능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구 분	정서 인식	정서 표현	감정 이입	정서 활용	정서 조절	전 체
양육 스트레스	-.208**	-.326**	.011	-.257**	-.229**	-.311**

** p<.01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어머니의 정서지능($r=-.311, p<.01$)은 양육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정서지능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봤을 때, 정서표현($r=-.326, p<.01$), 정서활용($r=-.257, p<.01$), 정서조절($r=-.229, p<.01$), 정서인식($r=-.208, p<.01$) 순으로 양육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감정이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정서표현, 정서활용, 정서조절, 정서인식 등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5. 정서지능과 양육효능감의 관계

구 분	양육효능감		전 체
	부모효능감	좌절감불안감	
정서인식	.509**	-.372**	.400**
정서표현	.550**	-.432**	.410**
감정이입	.151*	-.017	.189**
정서활용	.304**	-.347**	.145*
정서조절	.385**	-.337**	.261**
전 체	.558**	-.462**	.399**

* p<.05, ** p<.01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정서인식은 부모로서의 효능감($r=.509, p<.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r=-.372, p<.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을 보였다. 정서표현 역시 부모로서의 효능감($r=.550, p<.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r=-.432, p<.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을 보였다. 감정이입은 부모로서의 효능감($r=.151, p<.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정서활용은 부모로서의 효능감($r=.304, p<.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r=-.347, p<.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을 보였다. 정서조절 역시 부모로서의 효능감($r=.385, p<.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r=-.337, p<.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어머니의 정서지능은 부모로서의 효능감($r=.558, p<.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r=-.462, p<.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을 보였고, 양육효능감 전체($r=.399, p<.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어머니들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높은 반면, 부모로서 겪는 좌절감과 불안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높은 반면 좌절감과 불안감이 낮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정서지능이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6]와 같고,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인의 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VIF계수와 공차한계가 1에 가까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Durbin-Watson 계수도 1.85으로 2에 가까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고,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인의 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VIF계수와 공차한계가 1에 가까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Durbin-Watson 계수도 1.95로 2에 가까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정서지능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양육스트레스			
	b	β	t	p
정서인식	-.05	-.04	-.46	0.65
정서표현	-.39	-.24	-3.44***	0.00
감정이입	.16	.09	1.36	0.18
정서활용	-.18	-.11	-1.48	0.14
정서조절	-.20	-.16	-2.48*	0.01
constant	3.83		11.87***	0.00
R2	0.156			
F(p)	8.19***(0.00)			

* p<.05, *** p<.001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약 15.6%($R^2=.156$)의 설명력을 지니며,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중 정서표현($t=-3.44, p<.001$)과 정서조절($t=-2.48, p<.05$)이 양육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활용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것에는 정서표현($\beta=-.24$)이 정서조절($\beta=-.16$)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표 7. 정서지능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부모로서의 효능감			
	b	β	t	p
정서인식	.39	.27	4.15***	0.00
정서표현	.59	.37	6.29***	0.00
감정이입	-.00	-.00	-.04	0.97
정서활용	.13	.09	1.37	0.17
정서조절	.16	.14	2.45*	0.02
constant	.64		2.42*	0.01
R2	0.415			
F(p)	31.45***(0.00)			
구 분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			
	b	β	t	p
정서인식	-.32	-.17	-2.45*	0.02
정서표현	-.54	-.27	-4.20***	0.00
감정이입	.26	.12	1.99	0.05
정서활용	-.27	-.14	-2.00	0.05
정서조절	-.32	-.21	-3.52***	0.00
constant	5.07		13.81***	0.00
R2	0.284			
F(p)	19.03***(0.00)			
구 분	양육효능감 전체			
	b	β	t	p
정서인식	.17	.23	3.09**	0.01
정서표현	.24	.29	4.33***	0.00
감정이입	.08	.09	1.37	0.17
정서활용	.01	.02	.34	0.73
정서조절	.01	.01	.17	0.87
constant	2.004		12.69***	0.00
R2	0.234			
F(p)	13.59***(0.00)			

* p<.05, *** p<.001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부모로서의 효능감에 대해 약 41.5%($R^2=.415$)의 설명력을 지니며,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중 정서인식($t=4.15, p<.001$), 정서표현($t=6.29, p<.001$), 정서조절($t=2.45, p<.05$)이 부모로서의 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인식, 정서표현과 정서활용이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부모로서의 효능감에는 정서표현($\beta=.37$)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다음

으로 정서인식($\beta=.27$), 정서조절($\beta=.14$)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에 대해 약 28.4%($R^2=.284$)의 설명력을 지니며,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중 정서인식($t=-2.45$, $p<.05$), 정서표현($t=-4.20$, $p<.001$), 정서조절($t=-3.52$, $p<.001$)이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인식, 정서표현과 정서활용이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은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이 낮게 나타난 것에는 정서표현($\beta=-.27$)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다음으로 정서조절($\beta=-.21$), 정서인식($\beta=-.17$)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양육효능감 전체에 대해 약 23.4%($R^2=.234$)의 설명력을 지니며,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중 정서인식($t=3.09$, $p<.01$), 정서표현($t=4.33$, $p<.001$)이 양육효능감 전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인식, 정서표현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육효능감에는 정서표현($\beta=.29$)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다음으로 정서인식($\beta=.23$)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정서지능과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 및 정서지능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정서지능은 양육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중 감정이입을 제외한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활용, 정서조절 모두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지능은 양육효능감 전체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부모로서의 효능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높은 반면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공감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33][34]의 연구, 어머니들이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자녀양육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는 [3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정서지능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좌절에 직면하였을 때 긍정적으로 정서를 조절하고 스트레스와 변화에 잘 대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에서 감정이입을 제외한 정서인식과 정서표현, 정서활용과 정서조절의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것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며 정서적 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자녀와의 관계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인이 어머니의 정서지능임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높은 반면,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은 낮았다는 것으로, 어머니의 정서지능과 양육효능감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어머니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다는 것으로,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를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자녀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고 일관되게 행동하는 등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36-38]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바람직한 양육행동의 중요한 변인은 높은 양육효능감이고 [31], 높은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정서지능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하는 데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야하는데[27][40], 앞에서 살펴봤듯이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주요 변인이므로, 양육스트레스는 낮추면서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어머니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욱이 최근 들어 개인의 삶의 질(Well-being)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어머니에게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고 부모로서의 자신감과 만족감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킴으로써 양육의 즐거움을 찾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22]. 따라서 어머니 자신의 행복 뿐 아니라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어머니의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 정서지능의 하위 변인 중 정서표현, 정서조절이 양육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표현, 정서조절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지능이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약 15.6%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 정서지능의 하위 변인 중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이 부모로서의 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에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표현, 정서인식, 정서조절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육효능감 전체에는 정서인식, 정서표현 2개 하위영역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표현, 정서인식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지능이 부모로서의 효능감에는 41.5%,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에는 28.4%, 양육효능감 전체에는 23.4%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정서표현과 정서조절이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은, 어머니들이 양육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자신의 정서를 잘 표현하고 상황에 맞게 정서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반응 및 상황에 맞게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주고[5][47],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47]. 그리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수록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화를 내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20], 자신이 처한 업무나 역할 수행에 정서지능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정서지능의 하위 요소인 정서표현과 정서조절 능력이 아동의 정서 사회화 발달과 어머니의 부모 역할 수행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와 부모역할 수행 및 아동의 긍정적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정서지능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석된다.

어머니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정서표현, 정서인식, 정서조절 능력이 양육효능감에 영향력 있는 변인이라는 결과는, 조직 내에서 영업 실적이 뛰어나거나 탁월한 업무 수행능력을 발휘하는 조직원의 역량이 무엇인지 밝히려고 실시한 연구[48][49]에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 인식 능력, 뛰어난 수행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강력한 변별 능력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즉, 어머니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정서적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정서표현과 인식과 정서 조절 능력임을 말해준다. 정서표현과 정서인식 능력은 정확하게 정서를 파악하는 능력,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 감정과 관련된 요구를 표현하는 능력, 정서 상태를 파악하고 내적 감정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17][50]. 그리고 정서조절 능력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서지능 영역으로 정서적-지적 성장의 향상을 위하여 정서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능력과 관련 있다[50]. 그리고 정서지능은 풍부한 감수성 내지 어떤 성격이나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서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나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훈련에 의해 개발되고 발전

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19][21][46]. 즉, 정서지능은 개인적, 교육적, 직업적 개입을 통해 개발이 가능하고 정서지능의 구성요소에 포함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51].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정서인식,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들은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양육스트레스의 감소 및 높은 양육효능감의 예측 변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감을 극복하여 삶의 균형을 잡고, 어머니로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영향을 주는 필수 요인임을 말해준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여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사회성이나 대인관계 기술이 뛰어나고[52], 학업성취, 직업적 성공과 만족, 정서적 건강은 물론 삶에서 성공을 성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19][53].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 정서지능의 중요성을 밝혀주고 있고, 어머니로서 바람직한 양육행동 및 부모 역할을 잘해낼 수 있기 위해 어머니의 정서지능을 높이는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참 고 문 헌

- [1] D. Goleman,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London: Bloomsbury, 1995.
- [2] 이혜련, 최보가, “학령전 아동의 정서 이해와 부모의 정서표현성 및 아동 정서수용태도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제10호, pp.103-112, 2002.
- [3] K. MacDonald and R. D. Parke,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Vol.55, pp.1265-1277, 1984.
- [4] M. Putallaz,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Vol.58, pp.324-340, 1987.
- [5] 김문신, 김광웅,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제6권, 제1호, pp.3-13, 2003.
- [6] 김은경, 송영혜,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정서조절 양식, 정서반응태도와 유아의 정서능력과의 관계”, *정서·행동장애연구*, 제24권, 제1호, pp.43-64, 2008.
- [7] 안라리, *유아의 개인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발달, 사회적능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8] 조수정, 도현심, 김상원,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유아의 정서지능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31권, 제6호, pp.167-183, 2010.
- [9] 박영애, 최영희, 박인진, “모-자녀 성격조화 유형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제4호, pp.29-41, 2004.
- [10] 강민수,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지능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11] 김순녀, *어머니의 정서지능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2] 양경수, “어머니의 정서지능과 유아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산업기술연구논문지*, 제5권, 제1호, pp.361-371, 2002.
- [13] W. Roberts and J. Strayer, “Empathy,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Vol.67, pp.449-470, 1996.
- [14] 권희정, *어머니의 정서지능과 부모효능감 간의 상관연구*,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15] 노민자, 조혜정,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제11권, 제4호, pp.17-27, 2013.

- [16] P. Salovey and J. D. Mayer,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Vol.9, pp.185-211, 1990.
- [17] 문용린, 박윤정, "정서지능과 직위의 관계에 관한 종단 연구", 인간발달연구, 제12권, 제4호, pp.19-31, 2005.
- [18] R. Bar-On, *The Emotional Quotient Inventory(EQ-I): Technical manual*. Toronto: Multi-Health Systems, 1997.
- [19] G. Matthews and M. Zeidner, 정서지능: 그 오해와 진실 [*Emotional intelligence: Science & Myth*]. 문용린, 박윤정, 강민수, 최경아 옮김, 서울: 학지사, 2010(원서 2002 출판).
- [20] M. A. Rahim and C. Psenicka, "A structural equations model of stress, locus of control, social support, psychiatric symptoms, and propensity to leave a job," J. of Social Psychology, Vol.136, pp.69-84, 1996.
- [21] J. Ciarrochi, J. P. Forgas, and J. D. Mayer, 정서지능 [*Emotional intelligence*], 박재현, 장승민, 권성우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원서 2001 출판).
- [22] 백지희, 유아기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경험을 위한 목표, 피드백, 동기: 양육플로우 경험의 매개 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23]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2권, 제5호, pp.165-183, 2007.
- [24] 이효림, 신은정,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이 정서표현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제23권, 제1호, pp.247-262, 2014.
- [25] M. Laupa and E. Turiel, "Children's concepts of authority and social contexts," J.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85, pp.191-197, 1993.
- [26] G. F. Melson, "The development of metasocialization: A theoretical framework," J.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0, pp.241-266, 1989.
- [27] 신숙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28] T. Luster and L. Okagaki,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3.
- [29] 박응임, 영아-어머니간의 애착 유형과 관련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30] R. R. Abidi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19, No.2, pp.298-301, 1992.
- [31] 김미숙, 문혁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43권, 제8호, pp.141-152, 2011.
- [32] 김사라형선,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공감 증진 및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자녀양육코칭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9권, 제5호, pp.62-82, 2003.
- [33] 이상희, "母-兒 치료놀이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공감능력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제8권, 제2호, pp.62-82, 2003.
- [34] C. Letoumeau, "Empathy and stress: How they affect parental aggression," Social Work, Vol.26, pp.383-389, 1981.
- [35] C. Johnson and E. J. Mash,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18, No.2, pp.167-175, 1989.
- [36] 문혁준,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제6호, pp.1-11, 1999.
- [37] D. M. Tei and D. M. Gelfand, "Behavior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Mediation role of maternal

-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Vol.62, No.5, pp.918-929, 1991.
- [38] S. Mondell and F. B. Tyler,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 of problem-solving: 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7, pp.73-83, 1981.
- [39] A. Bandura,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Vol.32, No.2, pp.122-147, 1982.
- [40] R. Levy-Shiff, L. Dimitrovsky, S. Shulman, and D. Har-Even, “Cognitive appraisal, coping strategies and support resources as correlates of parenting and infant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4, No.6, pp.1417-1427, 1998.
- [41] M. H. Bornstein, O. M. Haynes, L. Pasual, and K. M. Painter, “Competence and satisfaction in parenting young children: An ecological, multivariate comparison of expression and sources of self-evalu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Argentina,” In U. P. Gielen, and J. L. Roopnarine(Eds.), *Childhood and Adolescence: Cross-cultural perspective and application(pp. 166-194)*,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42] 조현주, 박경애, “교사의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심리적 소진의 차이,”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4권, 제1호, pp.251-270, 2007.
- [43] D. W. Chan, “Perceived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among Chinese secondary school teachers in Hong Ko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Vol.36, pp.1781-1795, 2004.
- [44] 이미향,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자아개념 및 부모 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45] 배은주, *어머니의 정서지능과 부모역할지능과의 관계*,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46] 문용린, *종합적성진로진단검사*, 서울: 대교출판사, 1997.
- [46] 안지영,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47] 이양순, 정영숙, 이기영,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유능성,”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2권, 제1호, pp.41-63, 2006.
- [48] R. E. Boyatzis, D. Goleman, and K. Rhee, “Clustering competence in emotional intelligence: Insights from the Emotional Competence Inventory(ECI),” In R. Bar-On, and J. D. A. Parker(Eds.), *The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ory, development, assessment, and application at home, school, and in the workplace(pp. 343-362)*, San Francisco: Jossey-Bass.
- [49] D. C. McClenlland, “Identifying competencies with behavioral-event interviews,” *Psychological Science*, Vol.9, No.5, pp.331-340, 1998.
- [50] 문용린, 강민수, 최경아, “EQ 생활태도검사의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제11권, 제3호, pp.1-16, 2004.
- [51] C. Cherniss,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in the workplace,” In R. Bar-On, and J. D. A. Parker(Eds.), *The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Jossey-Bass.
- [52] S. L. Goleman, D. T. Kraemer, and P. Salovey, “Beliefs about mood moderate the relationship of stress to illness and symptom reporting,” *J. of Psychosomatic Research*, Vol.41, No.2, pp.115-128, 1996.
- [53] 심경희, 부성숙,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이 경력몰입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3권, 제12호, pp.540-549, 2013.

저 자 소 개

박 진 영(Jin-Young Park)

정회원



- 2013년 2월 :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세인트폴 어린이집 교사

<관심분야> : 부모-자녀 관계, 유아독서지도

부 성 숙(Sung-Sook Pu)

정회원



- 199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문학석사)
- 200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문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 유아의 사회성 발달, 정서지능, 교사교육